구호위원회 주일 설교 자료

# 풍성한 은혜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주일 설교 자료

# 풍성한 은혜

## 요한복음 9:1-41

구호위원회의 재난 대응 담당자의 지도 아래, 한 지역 자원봉사자 팀이 뉴욕 브루클린의 한 남자의 지하 아파트를 일주일간 청소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약 1.5미터의 물이 찼던 곳입니다. 초강력 태풍 샌디 덕에 그 남자는 3년간이나 거처를 잃고 부모님의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팀은 쓰레기를 먼저 치운 뒤 곰팡이가 자라나고 있는 욕실과 주방의 비품 및 목제 패널을 제거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버지니아에서 한 팀이 와서 아파트를 보수했고, 마침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비롯한 추억이 담긴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그가 받은 도움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와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피해 직후, 그는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일의 양에 압도당했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바닥을 보게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이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였지만 까닭이 어떠하든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호위원회와 연결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호위원회의 사역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것이지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당시의 사고방식에 갇힌 채, 그가 볼 수 없는 이유를 그의 부모나 그 자신의 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추측을 뒤집으시고, 그가 볼 수 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는 "...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 9:4b)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9:4

그는 분명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동전 몇 개를 던져주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의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표시로 예수님께서는 침과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마침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복된 시력에 대해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대합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은 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는지 궁금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병을 고치는 선지자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여 율법을 범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의 부모마저도 두려움으로 인해 아들과 거리를 둡니다.

구호위원회 주일 설교 자료

# 풍성한 은혜

시력이 회복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었고, 가족과 사회에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향한 여정 중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이런 확신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풍성한 은혜는 고사하고, 희미하게나마 아른거리는 은혜를 나누는 일조차 잊은 채 우리가 그저 지나치는 사람들, 분명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인생은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 우리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읽거나 봅니다.
- 우리는 사회 불안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듣습니다.
-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기근이나 가뭄에 대해 알고 있고,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식량 공급의 불안정한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을 단 한 번이라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만연한 고통에 대해 우리는 신경을 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이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고의로 무시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러한 사명으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폭풍이나, 전쟁, 기후 변화,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해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지역 사회와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연합감리교인들의 후원에서 시작된 풍성한 은혜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아파트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했던 것은 복구된 집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재를 당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섬기러 왔던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수재민과 만남을 통해 또 팀 내에서 서로 맺었던 관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또한 체험하였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도와주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제 상황 속에 그는 전적으로 혼자라고 느꼈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와 그를 직접 도왔던 이들을 통해서 그는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방치된 것처럼 또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호위원회 주일 특별 헌금을 통해,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풍성한 은혜를 통해 소망을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